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0. 10. Vol. 305



코로나19 여파로

양양송이 · 연어축제 전면 취소



양양송이 · 연어축제 내년에는 꼭 함께해요.

양양을 대표하는 송이 · 연어 축제가 올해는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올 가을 송이 · 연어축제가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양군축제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회의를 열고, 군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축제를 전면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송이축제는 10.8.~10.11, 연어축제는 10.22.~10.25일 까지 각 4일간 진행 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도 가을철 대유행의 위험성을 제기함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제례 및 송이판매부스 설치 등 일부 행사를 진행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돼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상황으로 이 또한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양송이 · 연어축제는 1997년부터 매년 9월, 10월 개최되어 온 명실상부한 양양의 대표축제로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23번의 축제를 이어오며 송이보물찾기, 연어맨손잡이, 특산물 판매,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으로 국내 · 외 관광객을 유치와 양양군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때문에 올해 송이 · 연어축제의 취소가 더욱 안타깝고 또한 송이판매상 및 시장상권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양군축제위원회는 송이 · 연어 판매를 위한 구입처 안내 등 온라인 홍보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내린 결정인 만큼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올해는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글로벌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 내년에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로 찾아뵙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이 사랑하고, 향기에 취하GO
연어야, 내년에는 양양에서 꼭 만나자!!



희망양양

- 04 기획특집_ 역대급 태풍에 '우리, 함께' 활약 빛났다
- 08 양양의 길_ 걷기 좋은 가을날, 오색찬란한 양양 속으로
- 11 마을가는 길_ 현북면 하광정리
- 14 맛있는 양양여행_ 양양송이버섯에 관한 가을 담론

의기양양

- 16 YANGYANG NEWS
- 19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명품 그 이상의 가치, 양양송이
- 20 의정소식_ 태풍 수해현장 점검, 의원간담회 개최
-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미천골 설화

열린양양

-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소식 · 305호

| 발행일 2020년 10월 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ssugi0129@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역대급 태풍에 ‘우리, 함께’ 활약 빛났다

태풍 마이삭, 하이선에 하나 되어 맞서다

역대 기록적인 폭우였다. 지난 9월 2일 저녁 7시25분부터 1시간 동안 124.5mm의 역대급 물 폭탄이 쏟아졌다. 순식간에 양양군 곳곳은 물바다가 되어버렸다. 속수무책으로 쏟아진 엄청난 폭우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연이어 10호 태풍 마이삭이 또다시 양양군을 덮쳤고, 수많은 피해의 흔적을 남겼다. 무너지고, 잠기고, 넘치는 위태로운 재난상황에 양양군과 양양군민들은 힘을 합쳐 맞섰고, 인명피해 없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다. 힘과 마음을 모아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한 수해복구현장 모습들을 담아본다.





연이은 태풍으로 무너지고 넘치고 잠기고 피해 속출

지난 9월 2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양양군에는 저녁 7시 25분부터 1시간 동안 124.5mm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 잠긴 가재도구의 정리가 채 끝나기도 전인 7일에는 제 10호 태풍 '하이선'이 연이어 몰아 닥쳤다. 양양읍 210mm, 서면 217mm, 손양면 204mm, 현북면 185mm, 현남면 198mm, 강현면 196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며 쏟아지는 비에 곳곳이 무너지고, 넘치고, 잠기는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지 불과 4일 만의 일이라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산사태와 도로침수, 하천범람 등 더 많은 피해상황으로 이어졌다.

물이 불어나면서 광정천, 장승천, 물치천, 감곡소하천 등 4곳의 하천이 범람 위기를 맞았고, 이에 따라 서면 장승리와 현북면 하광정리, 강현면 주청리 등 182세대 287명의 주민이 마을회관과 면사무소, 친인척 집으로 일시 대피하기도 했다. 양양소방서에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입구까지 교통이 통제되는 등 크고 작은 산사태, 도로침수, 유실 등으로 16개소

의 도로가 통제되었다. 또한 한 아파트 기계실이 침수되면서 150세대가 정전이 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두 번의 잇단 태풍으로 166세대 3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작물 피해도 컸다. 66ha 면적의 벼가 쓰러져 침수됐고, 78ha 면적의 농경지가 매몰됐다. 과수농가도 큰 타격을 입었다. 수확 시기를 앞둔 과수농가는 강한 비바람에 많은 낙과가 발생하면서 낙산배 재배면적 26ha 가운데 17ha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낙과율이 50% 이상에 이르고 시설 하우스 25동이 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전례없는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양양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실시간 재난문자 발송 및 읍면과의 소통 등 신속한 상황 전달로 다행히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민들 또한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줬고, 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다

태풍 마이삭은 시간당 124.5mm의 폭우를 쏟아 부었다.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양양군 곳곳은 삽시간에 물에 잠겼고, 총 90세대 14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양양군은 이재민에게 응급구호세트 145세트와 담요 179매, 텐트 48개, 마스크 200개를 지원했다. 또한 도로침수, 유실, 통행 장애물 등 34개소도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상수도 피해 11곳의 응급복구가 완료되는 동안 생수 3만병, 소방차 4대, 급수지원차 3대 등의 급수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역류, 침수 등의 하수도 관련 2개소도 긴급복구를 완료하며, 완벽한 진 않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이삭의 피해복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양양군은 6일 하이선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마을방송, 마을이장 문자 전송 및 하천범람 우려지역 및 저지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대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주요시설 등을 돌며 안점점검 및 사전대비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태풍 하이선의 긴박한 상황에 도로통제, 하천범람, 주민대피 등의 실시간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며 군민의 재산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은 마을담당공무원 263명을 투입해 주택 및 농작물 피해 조사를 완료한 한편, 도로와 상·하수도 복구 등 빠른 복구를 위해 장비 532대, 지원인력 2,900여명이 투입되어 빠른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붕괴되고 유실된 곳에는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이재민에게는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빛나다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이다. 그곳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봉사자들의 활약이 재난현장에서 빛을 발했다.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양양자원봉사대, 양양군체육회, 양양군자유총연맹, 양양군새마을회, 양양군의용소방대연합대, 양양군자율방범연합회 등 16개 사회단체에 속해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봉사자들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방문하여 복구활동을 펼쳤다.



손양면사무소		서면사무소		현남면사무소	
60분	5.5mm	60분	7.0mm	60분	2.5mm
금 일	204.5mm	금 일	217.0mm	금 일	198.5mm
전 일	19.0mm	전 일	19.0mm	전 일	19.5mm
강현면사무소		현북면사무소		양양군청	
60분	5.0mm	60분	3.5mm	60분	5.5mm
금 일	196.0mm	금 일	185.0mm	금 일	210.0mm
전 일	19.0mm	전 일	18.5mm	전 일	17.5mm

구호물품을 지급하여 힘을 실어주었다.

이처럼 공공기관, 단체를 비롯해 군 장병, 자원봉사자 등 양양군과 군민 모두가 함께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며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주택과 경로당, 과수 농가를 방문해 내·외부 배수작업과 토사제거, 가재도구 세척활동 및 낙과피해 복구 활동을 진행하며 피해가구에 힘을 보탤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난감해 하는 이웃을 찾아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피해복구의 일동공신 역할을 한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빠른 복구가 이루어졌고, 상처 입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태풍 피해복구에 국군 장병들의 역할도 컸다.

육군 8군단은 잇따른 태풍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더했다. 8군단은 대민지원요청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1,000여명의 병력과 굴삭기, 제독차, 급수차 등 각종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다.

장병들은 토사제거, 침수주택 정리 작업 등 태풍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일인 듯 적극적으로 복구활동을 해준 덕분에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고 빠르게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양양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군민들의 협력과 봉사활동에 힘입은 복귀로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보내온 위로와 응원, 그리고 따뜻한 온정이 전해져 태풍으로 피해와 상처 입은 주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

양양군,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다

지난 8일부터 3일간 행정안전부 사전피해조사단이 양양군을 방문해 조사를 완료했다.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집계액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도로 63개소, 하천 48개소, 수리시설 36개소, 상수도 6개소, 임도 29개소, 산사태 33개소, 해양쓰레기 5,000톤, 주택 166동과 농경지 99.02ha, 농작물 239.35ha 등의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195억 1천4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9월15일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등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현남면 해송천 도로유실 복구 현장에 이어 낙산 해변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등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피해상황 보고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상황 및 피해 현황을 전달했다.



양양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심각한 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하루빨리 돕기 위한 것으로, 군은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군민들이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휩쓸고 간 아픔의 현장에서 군과 군민 모두가 '우리, 함께'라는 마음으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글·사진 : 편집부)

걷기 좋은 가을날, 오색찬란한 양양 속으로



계절의 변화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나날들이다. 힘겨운 일상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 블루'로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는 동안에도 바깥세상은 봄과 여름의 풍경을 차례로 그렸다가 지우며 가을의 문턱에 이르렀다. 가을의 빛깔은 그 어떤 계절보다 오색찬란할 것이다. 이제 그만 문을 열고 걸어 나가고 싶다. 잠시라도 순수로 가득한 자연의 길을 천연덕스럽게 탐미할 시간을 허락받고 싶다. 걷기 좋은 가을날, 아름다운 빛깔로 아롱지는 양양의 풍경 속으로 빠져보고 싶다.

스카이블루 SKY BLUE

양양의 가을 바다는 우울감 짙은 무거운 블루가 아닌 청명하고 쾌활한 파랑이다.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길에서 그간의 시름을 잊는다.

해파랑길 42코스 (난이도 ★★★)

죽도정 입구 → 38선휴게소 → 하조대 → 하조대 전망대
→ 하조대해변 (9.9km, 3시간 30분 소요)

*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길.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장소와 최근 급부상한 서퍼들의 성지를 만난다.

해파랑길 43코스 (난이도 ★★★)

하조대해변 → 여운포교 → 동호해변 → 수산항 입구 (9.5km, 3시간 소요)

* 양양 바다가 가진 모든 매력이 모여 있는 길. 서핑을 비롯해 요트, 카누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해파랑길 44코스 (난이도 ★★★)

수산항 입구 → 낙산해변 → 낙산사 입구 → 설악해변 → 속초 해맞이공원 (12.3km, 4시간 30분 소요)

*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양양의 유구한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길. 시원한 강바람과 바닷바람을 두루 느끼며 걸어 본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난이도 ★★★)

물치 → 정암해수욕장 → 후진항 → 설악해수욕장 → 낙산사 (4.5km, 1시간 소요)

* 옛 시인 묵객들도 반한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길. 해변과 항구 그리고 사찰까지 다채로운 정경들이 즐거움을 선사한다.

레드&옐로우 RED&YELLOW

그 잎이 푸르렀던 게 정말일까?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물드는 단풍을 보면서 이전의 빛깔은 완전히 잊고 황홀경에 빠지게 된다. 양양의 계곡과 고갯길을 걸으며 완연한 가을에 젖어본다.



주전골(용소폭포코스)(난이도 ★★★)

약수터탐방지원센터 → 오색약수 → 선녀탕 → 금강문 →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 (3.2km, 1시간 30분 소요)

* 영롱한 계곡의 물빛 위로 알록달록 단풍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길. 계곡을 따라 트레킹을 즐기고 오색약수산채음식촌에서 약수로 지은 돌솥비빔밥으로 활력을 채운다.

구룡령옛길(난이도 ★★★)

갈천산촌체험학교 → 구룡령옛길 정상 (2.76km, 2시간 소요)

*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통로로 옛 길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품은 산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단풍 빛으로 물든 울창한 숲길을 걷다 보면 가을을 다 가진 듯하다.

화이트 WHITE

분단의 아픔을 딛고 생의 희망에 기대어 살아온 민족의 역사가 깃든 길을 걸으면, 순백과도 같은 평화와 희망을 떠올린다.

디모테오순례길(난이도 ★★☆☆)

양양성당 → 송이밸리 → 부소치리 → 명지리마을 (18km, 6시간 소요)

* 신앙과 자유를 찾아 38선을 넘어 남하한 북한 동포들이 걸은 길. 귀에 들리는 것은 땅을 내딛는 발소리와 엮은 숨소리뿐인 고요한 길을 걸으며, 온전한 평온을 느낀다.

38선 숨길(난이도 ★★★)

1코스 : 38선휴게소 → 잔교리 → 명지리 → 도리 → 내현리 (18.6km, 9시간 30분 소요)

2코스 : 내현리 → 정족산 → 서림리 (10km, 7시간 소요)

* 6·25전쟁 당시 전국 최초의 38선 돌파 등 역사적 콘텐츠를 담은 길. 전쟁의 소용돌이를 통과했을 그 자리 위에 지금은 담담한 자연 풍광이 상처를 보듬고 있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조형물과 고즈넉한 마을 풍경에 번잡한 마음을 치유한다.



그린 GREEN

초록 숲이 토해내는 맑은 숨결을 들이마시며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발걸음이 살랑살랑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한숨 대신 탄성이 절로 나온다.

모노골산림욕장(난이도 ★☆☆)

숲가꾸기산물처리장 → 모노골약수터 → 관동대뒷산 → 향교뒤편 (4.6km, 2시간 소요)

* 울창한 소나무 숲길로 이루어진 양양 지역주민의 최애 산책로.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의 기운을 담백 받으며 걷다가 삼림욕대에 누워 피톤치드 샤워를 즐겨보자.

구탄봉길(난이도 ★☆☆)

월리 → 구탄봉전망대 → 송이밸리자연휴양림 (2km, 2시간 소요)

* 산행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 아스라이 보이는 설악산 대청봉의 절경과 바다, 양양읍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하는 짜릿함이 있다.

양양달래길(난이도 ★☆☆)

달래촌 → 힐링센터 → 소나무숲길 → 화마흔적 → 웅바우 → 시루봉 (3km, 30분 소요)

* '시름을 달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름처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걷는 길. 천천히 오르는 산책길에서 은은한 소나무 향기가 길벗이 되어준다.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현북면 하광정리

오랜 역사와 비경을 간직한 바닷가 마을,
침체된 관광지를 일으켜 세운 마을의 저력,
역경을 함께 헤쳐 나가는 하광정리 주민들

추석을 앞두고 역대급 태풍이 두 개나 지나갔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길목에 자리한 하광정리는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아 집중 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보는 마을이다. 이번 태풍에도 예외는 없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힘을 모아 어느 마을보다 빠르게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 무릎에 힘을 주는 것이 인간이 가진 정신력이다.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 하광정리 사람들은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함께 여러 난관을 극복해 왔다. 마치 절벽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온갖 풍상에도 끄떡없이 제자리를 지킨 소나무처럼.



전국에서 이름난 명승지를 품은 마을



조선의 개국 공신인 하륜(河崧)과 조준(趙浚)이 은거했다고 알려진 하조대(河趙臺)는 빼어난 경관으로 양양을 찾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명소 중 하나다. 하광정리는 원래 마을 이름보다 '하조대가 있는 마을'로 더 잘 통한다. 하조대는 이곳 하광정리 사람들에게 특히 각별한 명승지이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하륜과 조준의 일화 말고, 이곳에 전해지는 또 다른 전설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왔기 때문이다. 하광정리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김의남 前 어촌계장(77세)과 박상현 노인회장(80세)은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두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하씨 성을 가진 총각과 조씨 성을 가진 처녀가 서로 연모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비관해 결국 벼랑에서 함께 투신했다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다. 김의남 前 어촌계장은 두 남녀가 떨어진 자리에 큰 홍합과 전복이 많이 낚였는데, 그것을 캐려고 바다에 들어가 기만 하면 물이 빨갱게 변해 시야를 흐리게 했다는 불가사의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절벽에서 몸을 던진 두 남녀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적대시하는 가문의 자제라는 말도 있고, 양반과 노비라는 신분의 차이에 맞선 연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느 것도 정설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마을에 전해지는 이 옛이야기가 하광정리만의 고유한 자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마을의 특화된 콘텐츠는 곧 마을의 보물이다. 박상현 노인회장은 얼마 전 동해안의 전설을 모아 책을 집필하겠다는 작가가 찾아온 일을 언급하면서, 하조대의 러브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마을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점쳤다. 이처럼 하광정리는 마을이 가진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어촌의 정취와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지역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마을 일을 내 일처럼, 내 일보다 더 열심히!

하광정리에는 현재 2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어업과 농업, 상업 등 다양한 직업군이 고루 분포한 마을이다. 하지만 바닷가를 끼고 있는 마을답지 않게 순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4가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마을에 제대로 된 항구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웃 마을의 기사문항을 빌려 조업을 하는 실정이다.

현재 마을의 가장 큰 소득원은 바로 '하조대 해수욕장'이다. 물론 처음부터 해수욕장 운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에는 서울의 관광회사에 의해 관광지로서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는 양양군이 관할하다가, 마을 소득창출의 일환으로 해당 소재지 마을에서 해수욕장을 직접 운영하자는 방침에 따라 2005년부터 하광정리 마을회가 하조대해수욕장의 운영을 맡아오고 있다.

하광정리 주민들은 타 해수욕장과 비교해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해마다 하조대 썸머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맨손으로 오징어나 조개를 잡는 어부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등 즐길거리를 확충했고, 주차비 무료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마을 기금으로 매년 해맞이 축제를 개최하고, 하조대 정자와 등대 사이에 일출시간을 알리는 전광판을 설치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조대와 하조대해수욕장을 홍보하는 데 기여했다.

운영 초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무보수로 일을 했다고 한다. 마을의 연장자인 노인회에서 식수대와 샤워장 관리, 환경 미화에 참여하면서 일손을 보탤었다. 주민 모두가 개인의 이득보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덕분에 관광객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깨끗하게 관리된 시설, 친절하고 인심 좋은 주민들, 물놀이하기 더없이 좋은 환경으로 찾아오는 피서객들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오제남 이장(54세)은 마을 사람들의 열의와 단합이 없었다면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해수욕장이 주 소득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열의가 컸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운영 노하우가 없어서 몇 년은 적자를 면치 못했죠. 해수욕장 운영을 그저 파라솔을 대여하고 샤워장을 관리하는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한 게 문제였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주민들끼리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마을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 내리라

올해는 마을에 화재보다 악재가 많았다. 무엇보다 마을의 주 소득원인 해수욕장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줄었고, 마을 단위 해수욕장으로 유일하게 집합 제한 명령이 떨어져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해수욕장 운영을 통해 마을이 자급자족하고 있는 터라 당장 앞으로가 걱정이다. 여기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마을 피해도 만만치 않다. 광정천이 범람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해야 했고, 20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막막한 상황들을 직면했지만, 하광정리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힘을 모아 난관을 헤쳐 나가는 중이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몇몇 분에게 앞으로 하광정리가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지 물었다. 먼저 오제남 이장은 평일에도 주말같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사계절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의남 前 어촌계장은 야간 정박을 할 수 있는 항포구가 생기고, 체험 어장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길 희망한다. 오세만 前 군의장(62세)은 신규 세대의 이견 차이를 좁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하광정리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민 한 명 한 명의 꿈과 포부가 모여 하광정리는 더 단단하고, 근사해질 것이다. 수 천 년 동안 바람과 파도에 맞서면서 수려한 절경을 품게 된 하조대의 기암절벽처럼 하광정리의 미래도 아름다운 결과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

〈글·사진 : 편집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선품仙品の 군주' 양양 '송이버섯'에 관한 가을 담론談論



청록靑綠의 여름을 지나니 이것저것 탐探하지 않을 것이 하나 없는 가을이다. 어제는 까마득하던 별들이 바람에 밀려와 달이 되더니, 오늘은 붉은 흙엽紅葉의 절세絶世에도 구름처럼 머물던 가을이 눈으로 마음으로 호사롭다. 음양오행의 행간行間에도 가을 사주四柱는 사사로움 없이 오감五感이 풍요로운 천추千秋의 절기라 하였는데, 찬 이슬 밤의 한로寒露에도 굽힐 뜻 없던 늙은 솔 나무가 꽃을 피우고, 덕德을 쌓듯 봉긋한 대궁마다 묘향妙香의 향기로 빛나는 양양땅에도 일 만석一萬石의 가을이다. 뜻을 두고 굽어 살피지 않아도, 눈을 감고 돌아서면 서리서리 마음에 새긴 연정戀情이듯, 만공산滿空山마다 선품仙品の 향기로 무엇이라도 선뜻 비워둘 수 없이 다복多福한 양양이 가을로 지천이다.



길지吉地 따르는 오행五行의 선품仙品

양양의 가을은 선품仙品の 향쫘으로 무리 저야 진정으로 가을의 뜻이다. 다섯 가지 곡식과 백 가지 과일을 이르는 오곡백과五穀百果가 만연하여도 임금 아래 백성의 품앗이로 올렸던 송이버섯이 돌아야 진짜 양양의 가을인 것이다. 신묘의 수작秀作으로 돋는 송이버섯이라는 게, 신명神明이 거처하는 십승지十勝地와 다를 바 없이 자연과 담론하는 삼천리 땅에서도 음陰과 양陽이 조화를 이룬 ‘지기地氣’가 있는 땅에서만 돋으니 양양 땅은 분명 길지吉地라 할 것이고, 송이버섯은 분명 오행五行의 산물産物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쉬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성근 향기로만 찾아야 하고, 햇살보다 연한 손끝으로 신주神主처럼 들춰야 하는데 이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것이 아니라, 허리 굽혀 아래에서 위를 쳐다봐야 봉긋한 정도를 가늠하게 되니, 우러러봄에도 스스로가 겸손함을 따라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선품仙品の 균주’이다. 그 향을 따를 때도 무명천 비치듯 실오라기처럼 가려내어 코끝에서도 향이 흠어질까 무겁게 앓는 것이 송이버섯을 대하는 섭식攝食의 예의라 하였다. 이렇듯, 송이버섯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선경仙境의 향’을 스스로 지녔으니, 누구였든 맛의 관직으로만 논할 것이 못된다. 지금의 양양 송이버섯이 지닌 뜻도 이와 같은 것인데 국민학교 다닐 적에 지게로, 소쿠리로, 망태기로 저나를 때도 그 뜻만은 변함이 없었던 양양의 송이버섯은 길지吉地를 따르는 오행五行의 선품仙品이다.

사람의 태생 따르듯 버섯 가운데 유일한 금줄禁— 신앙

지금에서야 오늘 같은 청명의 가을이면 그 값이 양양부사 연암 박지원이 양양 땅을 이르러 호가(呼價하던 1만 냥에 버금가는 송이버섯이지만, 선계仙界의 뜻으로 돋는 송이버섯이라 해도 귀하고 천한 것이 내 뜻이 아닌 때도 있었다. 잣송이에서 잣을 털어 백미 쌀과 바귀 먹는 게 송이버섯 벌이보다 나았을 때이다. 그때의 송이버섯은 등짐 값 정도로 산山물건을 다니는 산꾼들의 찬품이거나 두름으로 엮여 처마 밑에 매달렸다가 겨울철에 식구들의 소소한 약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이렇다 한들 흔한 것이 귀한 것이 되고, 귀한 것이 흔한 것이 되는 것은, 때에 따른 것이니 크게 아쉬워 할 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가을만 되면 그리워 잠 못 드는 양양의 송이버섯이다. 홀로 돋은 날송이, 서녘이 돋은 줄송이, 십 여개가 함께 돋은 방석송이도 좋으려면 마당 밭에 셀 수 없이 봉긋하게 돋은 일 천금一天金の ‘마당송이밭’이 누구의 차지가 되든 무관하다. 가을답게 푸르고 높기만 한 가을 솔 향 아래 낮은 몸짓으로 ‘송이 돈’을 줍느라, 먼저 피어 송이버섯을 기다리는 연분홍 ‘송이맛이풀꽃’의 허탕 질에도 분하지가 않으니 말이다. 청록靑綠의 산수山水에 돋는 일천 구백여의 버섯 가운데 유독 송이버섯만이 사람처럼 유일하게 ‘금줄’을 두른다. 이 송이버섯 가운데서도 양양 송이버섯이 이토록 곤륜산 서왕모의 불로장생 묘약妙이라던 복숭아 인 듯, 팔도八道の 도처到處로부터 추대공신推戴功臣의 품계品階에 올라 있으니 양양의 송이버섯이 사람처럼 유일하게 ‘금줄’을 두르는 것에는 마땅하게 옳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글·사진 :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바로 잡습니다〉

본지 9월호 15페이지 ‘죽도 서퍼(Surfer) 음식’ 기사에서 “재벌총수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죽도해변 서퍼문화거리’에서 수제 햄버거를 먹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2시간이나 기다린 큰 사건(?)이 있었다”와 소재목 ‘재벌총수의 인구리 죽도 햄버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햄버거 가게는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에** 위치해 있기에 바로 잡습니다.



양양군, 관광활성화에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솔루션”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관광분석, 생활인구분석에 대한 빅데이터가 제공되어 업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서핑스팟, 낙산사, 하조대, 양양전통시장 등의 11개 주요 관광지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관광 분석 컨설팅을 10월까지 추진하여 관광객 기본 현황, 먹거리, 숙박 유형, SNS 연관어 등을 분석해 관광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정확한 관광 수요 예측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공되는 빅데이터는 이동통신사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들의 수요 및 여행 패턴을 분석하는 것으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의 방문 유형, 체류 기간, 소비 특성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수도 파악이 가능해 효율성이 매우 높다.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 양식단지 조성

현북면 증광정리 131-8번지 일원 116,824㎡ 부지에 2020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약 2천 억원 투입, 연간 2만톤 생산 규모의 육상연어 양식단지를 조성한다.

군은 올해 초부터 동원산업(주) 및 강원도와 사업부지 및 투자유치 등과 관련한 협의 및 군의회 사업 설명 등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9월 1일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김진하 양양군수,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명우 동원산업(주) 대표이사, 김정중 강원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을 갖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식 수조, 종묘·친어 r&d센터, 임시 가공시설 등의 신사업 추진을 1단계로 추진 후 2단계로 양식수조 증축, 프리미엄 제품 생산, 가공공장 신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으로 향후 4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양관광과 레저 동시에 잡는 해양레저 대표 도시 조성

올해 3월 착공한 양양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이 오는 10월중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4월 운영 개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양읍 조산리 95-45번지 일원에 1층에는 매표소·승객대기실·탈의실, 2층에는 사무실·휴게공간·전망데크로 구성된 목조 2층의 수상구조물을 조성 중에 있다. 또한, 부대시설로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연결부교, 계류장, 탑승장이 조성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남대천 하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셋강형 수로 1.2km를 포함한 총연장 2.9km를 따라 황포돛배, 카약, 패달보트, 전동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셋강과 본류를 순환하면서 하천 생태체험과 레저관광을 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야외 전망데크가 조성된 2층의 휴게공간을 이용하여 남대천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양양군 중소기업제품 해외에서도 인기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 4개사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 H-Mart 13개 지점에서 비대면(무인판매) 특판 행사를 추진했다.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설악산그린푸드 외 3개 기업(양양오색한과, 대솔영농조합법인, 매홍엘앤에프)이 참여하여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건표고버섯 외 건나물류, 찹쌀약과, 송이과자, 누룽지, 고구마 말랭이 등으로 5,800만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수출초보기업 교육·컨설팅 및 외국어 홍보책자 제작 지원을 통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마케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건강계단 확대 조성으로 생활 속 건강 지키미 앞장

건강계단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계단 오르기를 유도하기 위해 계단 한 칸을 오를 때마다 소모되는 칼로리와 늘어나는 건강수명, 걷기의 올바른 자세, 비만 예방법 등 유익한 건강정보를 시각적 요소를 가미해 표현한 이미지로써, 계단 면이나, 엘리베이터, 계단 벽면 등에 부착하여 활용된다.

관내에는 현재 군청과 보건소,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과 현산공원, 하조대등대 탐방로, 하조대전망대, 죽도전망대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다수 이용하는 근린생활공원과 주요 관광시설에 야외 건강계단 등 총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군은 관내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강현면 우미린디오션아파트 5개동 10개소에 건강계단을 추가로 설치하여 금연, 절주, 운동 등의 메시지를 표출하기로 했다.



벼 수확철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을 임대농기계 중점대여기간으로 정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23대의 콤바인 중 14대를 6개 읍·면에 전진 배치했다.(현북면·현남면 3대, 양양읍·서면·손양면·강현면 2대 배치) 나머지 9대의 콤바인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와 분소에 예비로 배치해 임대농기계 고장에 대비한다.

농기계 임대 낱자는 콤바인 미 보유 농가를 우선해 농기별 1일 작업을 원칙으로 추첨을 통해 정한다. 앞서 각 읍·면별로 추첨을 실시한 결과 모두 226개 농가에서 가을 추수를 위해 콤바인 임대를 희망했다.(현남면 76, 현북면 59, 서면 54, 손양면 39, 강현면 24, 양양읍 14)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임대농기계 운반 전담인력과 농기계 점검·수리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중점대여기간 동안 주말 없이 상시 운영한다.

한편, 양양읍과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현남 두창시변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강현면 정암리에 북부분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양양 현북면에 '달인 김병만 마을' 조성

'달인' 캐릭터로 유명한 개그맨 김병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는 현재 디스커버리 채널의 "땅만 빌리지" 프로그램 촬영장으로 2022년까지 사용 예정이며, 양양군은 9월 17일 양양군청에서 스튜디오 디스커버리(주) 정일훈 대표와 담당 PD, 개그맨 김병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상호 협력해가기로 했다.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새롭게 출발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준비 중인 "땅만 빌리지"는 현북면 중광정리에 예쁜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어 가는 스타들의 마을 운영기를 다룬 프로그램이다. 군은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촬영장을 관광 명소화하고, 지역 개발 및 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양양군 관문 및 양양시장 등 주요관광지 가로등주 신설·교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및 서핑객 증가로 인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양양군 관문인 양양삼거리 가로등 밝기를 조절하고, 양양시장 진입로인 남대천 둔치 300m 구간에 가로등을 신설한다. 또한 양양읍 남문리 278번지 일원 대왕마트~실내체육관 구간에 가로등 9개소를 설치해 지역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7번 국도변 조산삼거리~도립공원 구간 및 조산사거리~디그니티호텔 구간(플라이강원 진입로500m)에도 LED 가로등 25등을 신규로 설치한다.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구간은 관광지임에도 가로등이 부족해 주변 환경이 너무 어두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 채도가 낮은 색채의 가로등주를 일괄 교체하여 관광객 통행이 많은 주요 관광지의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또한 주요관광지에 가로등을 신설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강화 및 보행자 보호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상반기 상수도 누수탐사로 5억원 절감효과

2019년 기준 30.6%였던 상수도 누수율을 저감시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2개반 11명의 탐사반을 투입, 양양읍, 강현면 일대의 상수관로를 탐사했다. 전자식 누수탐사기, 청음봉, 수압계, 제수변탐지기 등 누수 탐사장비를 투입해 정밀 탐사한 결과 강현면 옹호리 외 9곳의 누수 원인을 파악했으며, 즉시 복구반을 투입해 누수차단 작업을 했다. 10곳의 총 누수량은 1일 731㎥(연간 266,815㎥)로 이를 t당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연간 5억여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군은 올 상반기 누수탐사로 이 같은 성과를 거양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양양 시내권과 현남면 급수구역에 대한 탐사를 계속해 누수율을 지속적으로 저감시킬 계획이다.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명품 그 이상의 가치, 양양송이!



2006년 임산물 최초,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제1호로 등록되면서 타 지역 송이와는 차별화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그 이상의 가치, 양양송이!
올해는 예전보다 다소 늦은 9. 23일 첫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면 양양속초산림조합 지하 공판장은 연일 송이 향으로 가득합니다.
귀한 몸매에 걸맞는 등급과 가격으로 낙찰된 송이는 금색, 은색, 동색, 주황색의 아름다운 띠지를 두르고 향기로운 자태를 뽐냅니다.

이처럼 귀 하다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송이의 양이 전보다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 가을, 계절의 진객 양양송이와 함께 향기 그윽한 호사를 누리보는 건 어떨까요?





태풍 수해현장 점검 및 주민 위로·격려

집행부에 신속한 대책마련 및 피해 복구 당부



지난 9월 10일,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현장들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였으며, 집행부에 피해복구 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태풍 피해복구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피해 현장을 조속히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해시의회, 양양군의회에 구호물품 전달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9월 15일 양양군의회를 방문하여 쌀·라면 등 100만원 상당의 태풍피해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장은 “도움의 손길을 내민 동해시의회에 감사하며, 피해 주민들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간담회 개최

남대천 친환경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지난 9월 7일 간담회를 열고 양양군 대외정책과로부터 양양남대천 친환경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보고받았다.

본 사업은 손양면 가평리 일원(남대천 하구)에 습지생태계 복원을 통한 탐방·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 파노라마 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 관광자원의 가치 증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국비 등 보조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타시·군 사례와 관광객 수요 및 사업수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추진 시 양양공항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토리 개발과 시설물 설치를 당부했다.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관련 예산성립전 사용

지난 9월 14일, 양양군 산림복지과로부터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조기복구를 위한 예산성립전 국·도비 사용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의원들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임도시설 피해 등 산림피해지의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양양군 안전교통과로부터 태풍 응급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산성립전 사용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는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따른 수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한 대비 예산을 사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은 침수된 지역과 관련하여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한 확인과 점검을 요구하였고, 파손된 도로·하천·제방 등 주요 시설물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태풍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양양의 사림사지(沙林寺址)에 얽힌 미천골(米川谷) 설화

양양군 서면 황이리 미천골에는 아주 넓은 사림사의 옛 절터가 있는데, 그 사림사의 창건, 규모, 폐사의 원인, 시기 등의 기록은 없으나 여지도서(輿地圖書)를 비롯한 여러 지리지와 고문헌에는 ‘사림사는 양양부 서쪽 30~70리에 있으며 사림사 내에 선림원이 있었으며, 그곳에 홍각선사비(弘覺禪師碑)가 있고 지금은 폐사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폐사된 유취지에는 삼층석탑(보물444호), 석등(보물445호), 홍각선사탑비(보물446호), 부도(보물447호)만 남아있으며 더 귀중한 자료는 1948년에 이 절터에서 출토된 사림사범종의 내부 기문이다.



《사림사 범종의 내부 기문》

『貞元廿年甲申 三月 廿三日 當寺鍾成內之古尸山郡仁近大乃末紫草里 施賜乎 古鍾金 二百八十廷 當寺古鍾金 二百廿廷, 此以本爲內 ……』

『정원이십년갑신 삼월 이십삼일 당사종성내지고시산군인근대내말자초리 시사호 고종금 이백팔십정 당사고종금 이백이십정, 차이분위내 ……』

《사림사 범종 명문 해석》

【번역】

『정원 20년 갑신(804) 3월 23일에 당사의 종의 이루어지다. 고시산군의 인근 대내말과 자초리가 시납하신 옛 종의 쇠 280정과 이 절의 옛 종의 쇠 220정, 이것으로 밀천을 삼고 ……』

【부연/敷衍】

신라 애장왕 5년인 804년에 옛 종 쇠 280정과 당사의 옛 종 쇠 220정을 밀천으로 삼았다 하였으니 804년 이전 꽤 오래전에 사림사는 창건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범종도 월정사에 옮겨졌다가 6·25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사진으로

밖에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 잔해는 현재 국립춘천박물관 한 곳에 전시되어 있다. 파손된 문화재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으나 이 절에 얽힌 두 가지의 설화만은 영원히 구전으로 이어져오는데 우선 첫 번째 설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사람사가 있던 골을 미천골이라고 일컫는 설화

사람사에서 날마다 범종소리와 이천여 명 스님들의 독경소리가 미천골에서 일어나 설악산 남쪽 기슭에 메아리치는 불교의 성지였다. 당시 나라에서는 어찌나 스님들이 그렇게 많았으며 어떻게 이곳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모여졌는지 놀랐다. 이곳 산골 사람들은 스님들로부터 불교에 귀의하는 보람을 느끼는 반면 시달림도 산같이 높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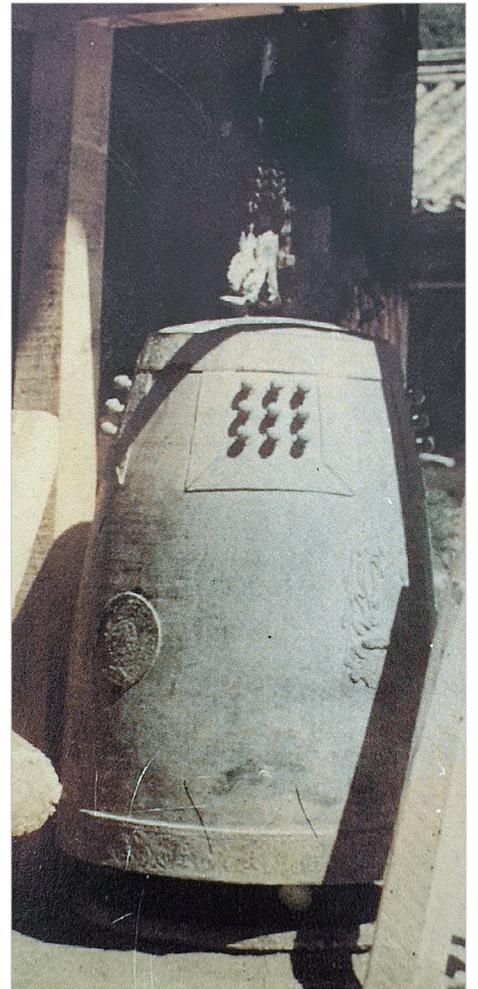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 중 수원이 100 리나 되는 가장 긴 양양 남대천의 지류는 셋으로, 하나는 오대산에서 발원하는 본류와 다음 하나는 후천으로 구룡령에서 발원하는 서림천과 또 하나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하는 오색천으로 이 셋이 합류하여 큰 하천을 이루어 동해로 유입하는데 남대천의 하구를 항개목이라 부른다.

그런데 사람사에서 아침저녁에 스님들의 공양을 위하여 씻은 쌀뜨물이 사람사 절계곡의 미천골에서 시작하여 서림천과 합류하여 70리 물길 따라 흘러 항개목까지 부영계 하루 두 번씩 물 들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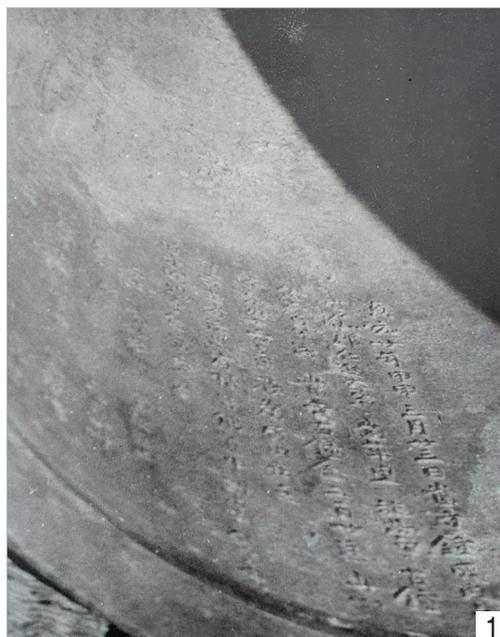
몇 섬의 쌀을 씻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의심스럽기는 하나 이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미천골이라는 지명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것에 연유하여 사람들은 사람사가 있던 계곡을 이천여 명 스님의 공양미를 씻은 시내라는 뜻으로 미천골[米川谷]이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이야기가 재미있게 전해진다.

이는 사람사의 옛 절의 규모도 헤아릴 수 있는 역사와 지리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설화이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정원이십년명 신라범종(貞元_年名 新羅梵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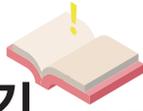


1. 범종(梵鐘) 내부의 기문(記文)

2. 6·25전쟁으로 소실된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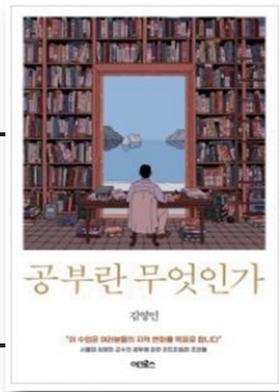
2



이달의 책이야기

공부란 무엇인가

김영민 지음 | 어크로스(2020. 8월)



“이 수업은 여러분들의 지적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생각의 근육’을 길러주는 리드미컬한 조언들

‘공부란 무엇인가’, 김영민 교수가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돌아왔다. 공부에 관한 논의가 입시 ‘제도’에 대한 토론으로 축소된 오늘날,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김영민 교수가 『공부란 무엇인가』에서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공부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생각의 근육’을 길러주는 리드미컬한 공부 조언을 펼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쓰기, 읽기, 생각하기, 질문하기 등을 중심으로 공부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자기 자신의 견해를 만들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소한 일상의 에피소드로 문을 연 뒤,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진지한 생각거리를 유머와 해학으로 포장해 제시하는 김영민 글쓰기는 독자를 차원 높은 사유의 영역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 책 속 한 구절 ◆

젊은 날 입시와 취업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공부를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그 화려한 시간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 마치 날씨가 너무 좋은 날 경치가 아름다운 길을 돌아보지 않고 바빠 지나치는 것이 그 시간에 대한 모욕인 것처럼. 나중에 돌이켜본 자신의 화양연화(花樣年華)가 기껏 수능 시험을 얼마나 잘 보았나, 혹은 얼마나 명문 대학에 입학했는가, 정도라면 그것은 그보다 흥미로운 지적 체험이 없었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다. (12쪽, 프롤로그)

공부에 매진해본 사람만이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당겨진 활시위만이 이완될 수 있듯이, 공부라는 긴장을 해본 사람만이 휴식이라는 이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지만, 공부를 안 해서 제대로 못 쉬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쉬는 일은 쉬워집니다. (265쪽, 에필로그)

양양교육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도서

건방이의 초강력 수련기. 1: 머니맨 어벤저스

천효정, 비룡소(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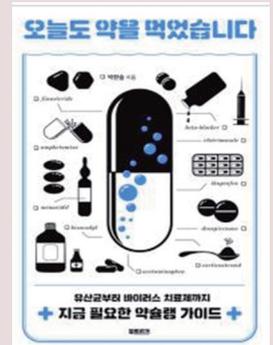


어린이 무협동화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가 새로운 캐릭터, 더욱 강력해진 스토리의 시즌2로 돌아왔다!

건방이가 돌아왔다. 본격 어린이 무협 동화로 주목받으며 제2회 스토리킹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비룡소의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가 5권을 끝으로 시즌1을 마무리하고, 독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시즌2 「건방이의 초강력 수련기」로 다시 찾아왔다. 중국으로 수련 여행을 떠난 스승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아이들끼리 그간 갈고닦아 온 재능을 발휘하여 위협적인 적들에 맞서게 된다. 더욱이 새로운 그림 스타일로 선보이는 전혀 다른 느낌의 주인공들이 건방이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사로잡을 수 있을지!

오늘도 약을 먹었습니다

박한솔, 북트리거(2020)



매일 먹는 약,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약으로 배부른 당신을 위해 준비된 단 하나의 약술랭 가이드!

밥은 굶어도 약은 챙기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5가지 약 이야기!

밥은 건너뛰어도 약과 영양제는 챙겨 먹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오죽하면 약으로 배가 부르다는 이들도 있을 정도다. 프로바이오틱스부터 진통제, 항바이러스제까지 우리 주위의 약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당장 지금 나를 살게 하는 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학적 쓰임을 통해 몸에 적용되는지, 또 어떻게 복용하면 되는지 알려 주는 쓸모 있는 ‘과학 실용서’이다. ‘약 칼럼니스트’ 박한솔이 어려운 약학 지식을 일상어로 번역하여 약의 작용 원리, 흥미로운 의학 상식, 꼭 알아야 하는 약 복용법까지 일러 준다.

글·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10/07 <트롤킹>
 10/08 <예티 : 신나는 동물 탐험대>
 <남과 여 : 여전히 찬란한>
 10/14 <나의 이름>
 10/15 <알피니스트 : 어느 카메라맨의 고백>
 <소리도 없이>
 10/22 <내 사랑 찾기>



※ 영화관사정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상영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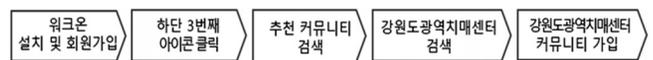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코코양양	1명	재행사 (경력자)	07:00~16:00 (주6일)	연3,000만원이상 (협의)
(주)취찬산업 (낙산비치호텔)	1명	주방보조원	교대근무	연2,200만원
(주)취찬산업 (낙산 할리스커피)	1명	바리스타	교대근무	연2,200만원
(주)한샘개발 (낙산비치호텔)	0명	룸메이드	09:00~18:00 (주6일)	월224만원
주식회사 스마트푸드	5명	기계조작원, 연구원, haccp관리원, 식품영업	09:00~18:00 (주5일)	월180만원이상 (협의)
주식회사 가평건설	1명	토목기사 (자격증 필수, 경력자)	09:00~18:30 (주5일)	월300만원
(주)세인	1명	용접원 (자격증 필수)	08:00~18:00 (주6일)	월200만원 (협의)
주식회사 오션블루	1명	해양심층수 영업원	08:30~17:30 (주5일)	연2,400만원 (협의)
동흥실업	1명	재활용품 분리선별 및 수거원	08:00~17:00 (주6일)	월210만원
정다운마을	19명	생활지도원 (정규직2명, 기간제17명)	교대근무	협의
바다마을아파트	1명	아파트관리원 (청소, 경비, 설비업무)	격일근무	월210만원
(주)교원 스위트호텔낙산	1명	룸메이드	08:30~17:30	월20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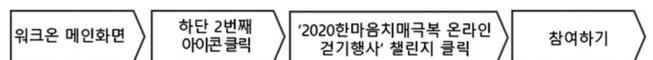
2020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 행사 안내문

강원도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극복을 기원하는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 행사기간: 2020.10.01.(목)~10.30.(금)
- 참가대상: 강원도민
- 참가방법: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 앱 활용한 150,000걸음 걷기
 ※ 단, 1일 10,000걸음 이내 제한, 必 커뮤니티 가입 및 챌린지 참여 - 커뮤니티 가입



- 챌린지 참여



- 참가혜택: 선착순 1,000명,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
- 문의: 033-257-9164

공공비축미 품종검정제도 안내

- 대상 : 양양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
- 시료채취 : 공공비축미 매입 장소에서 해당 농가 및 농관원(산물버는 RPC자재검사관) 직원 입회하여 시료 채취(600g/검정용 · 보관용 각 300g)
- 검정방법 : 표본추출 된 농가의 시료에 대해 검정(DNA검사) 과정을 거쳐 양양군 정부양곡 지정 품종인 맛드림품종과 일치 여부 확인
- 검정절차 : 시군별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 → 매입시 시료채취 → 민간 검정기관에서 검정 → 검정결과 농가 통보 및 조치
- 제재방안 : 품종검정 결과 공공비축미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
- ※ 양양군 공공비축미품종은 맛드림입니다.
(다른 품종 혼합 시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지방세 환급금 지급 신청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 드리지 못하고 보관 중인 지방세 환급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및 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스마트폰 : '위택스', '정부24'를 통하여 환급금 유무 확인 및 계좌 번호 입력, 지급 신청
- 전 화 : 아래 문의처로 전화, 본인 확인 후 환급 계좌 번호 고지 및 지급 신청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033) 670-2297)
- ※ 2020.10.31.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 중 기존 환급내역 등을 통해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그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코양양' 웰컴센터 농특산물 판매장, 지역 농특산물 판매

양양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웰컴센터 2층 농특산물 판매장 코코양양이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웰컴센터 2층(양양읍 일출로 570)에 조성된 농특산물 판매장 코코양양은 올해 1월 개업했다. 코코양양은 205㎡ 규모의 면적에 지역 농산물 및 중소기업 농산가공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꿀, 들기름, 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가공제품들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 특히 지역 쌀을 재료로 한 100% 현미쌀빵을 시식·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여 한 번 구매해 본 소비자들의 제품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참여 입점업체는 쌀전업농양양군연합회 등 30여개업체이다. 판매장 내 남은 공간을 활용하여 판매대를 추가 설치하여 보다 다양한 제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홍보 리플렛과 농특산가공제품 등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코코양양은 영어 접두사 co(함께, 다 같이)와 양양의 두 글자와 짝을 맞춰 부르기 좋게 코코(coco)로 지어 양양군과 양양군민들이 다 함께 성공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K-Voting 온라인 투표시스템

이용절차

- 1 단계 사이트접속 www.kvoting.go.kr 접속하여 민간영역, 공공영역 선택
- 2 단계 이용신청 이용신청서 작성
- 3 단계 협약체결 및 이용승인 관할 선거위와 이용협약 체결, 관할 선거위의 이용승인
- 4 단계 선거개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선거정보 입력 및 선거등록
- 5 단계 수수료 납부 자세한 이용수수료, 납부방법 등은 홈페이지 확인
- 6 단계 투·개표 투표참여 안내문자 발송, 투표진행상황 조회, 투표야기 및 개표
- 7 단계 선거정보저장 개표결과 조회 및 인쇄 (투표 종료일부터 7일까지 가능)

이용수수료 (부가세 포함)

구분	선거인수	기본수수료	추가선거
민간영역	2천명 이하	인당 770원	인당 550원 (1년 이내 동일기관)
	4천명 이하	인당 660원	
	6천명 이하	인당 550원	
공공영역	6천명 초과	별도협의	

공공영역 홈페이지 참조

업무지원센터 현장투표 지원시 수수료

지역에 따라 1인 1일 기준시 22만원~33만원

- **민간영역**
 - 공중주매, 회사, 조합, 협회 등
 - 공공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 **공공영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하급기관 포함)
 - 공공기관, 중학교, 고등학교
 -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위탁이 가능한 단체 (의무위탁선거에 한함)
 -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 (단체명선·당대표경선에 한함)
 -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할 단체

투표 방법

스마트폰 이용 웹 투표 시

1. 투표안내 문자수신
2. 수신확인후 URL 터치
3. 보안문자입력
4. 표시되는 보안문자를 입력
5. 선거정보/투표하기
6. 투표하기 터치 (선거정보 터치시 후보자 공약 확인 가능)
7. 본인 확인정보 입력
8. 생년월일, 이름 등
9. 투표
10. 후보자/인간 선택

스마트폰 / 피쳐폰 이용 문자 투표 시

1. 투표안내 문자수신
2. 본인 확인정보 입력
3. 생년월일, 이름 등
4. 선거정보/투표하기
5. 후보자/인간을 숫자(1~9)로 입력

PC 투표 이용 시

1. 투표안내 문자 수신 후 URL을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거나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선거정보-그린을 통해 투표
2. 투표안내 문자 수신 후 URL을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거나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선거정보-그린을 통해 투표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만족도 - 난이도 - 재이용 의사

만족도	난이도	재이용 의사
만족 69.5%	난이도 85.5%	재이용 의사 7.0%
다소 만족 19.0%	다소 난이도 13.6%	다소 재이용 의사 3.5%
보통 9.5%	아름고 복잡했다 -0.5% 가량	
다소 불만족 1.5%		
불만족 0.5%		

재이용 찬성 이유

이유	비율
시간 장소의 구애 없이 재투표 가능	87.0%
온라인 투표결과가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음	83.4%
투표참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음	30.1%
선거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17.6%

※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선거(투표대상인원 8,288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9개소당 1명당 1표)

정보꾸러미

2020 인구주택총조사

나와 내 가족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대표로 말해주세요!

인터넷 및 전화 조사 10.15. ~ 31. / 방문 면접 조사 11.1. ~ 18.

이제 간편하게 인터넷 또는 전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census.go.kr) / 콜센터(080-400-2020)

▶ 조사대상 : 2020년 11월 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기본조사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20%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 조사방법 : 인터넷 및 전화 조사(10월 15일 ~ 10월 31일), 방문 면접 조사(11월 1일 ~ 11월 18일) ※인터넷 및 전화로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0.9.1.~11.30.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정성! 치후원금이 만드는
정성! 숙한 정치문화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상향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됩니다.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 시설 주위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구분	변경전	변경후	
		안전표지 설치	안전표지 미설치
승합자동차	5만원	9만원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8만원	4만원

양양소방서 ☎ 671-2119

강원디자인진흥원 개원기념 기획 전시회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개원을 기념하여 'Design is Life, Life is Design'을 주제로 하는 상설전시와 '강원 디자인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강원디자인협회전을 개최한다. 그리고 글로벌디자이너 및 국내 디자이너 4명이 참여하는 Design's showcase 특별 기획전시는 그래픽, 가구, 세라믹, 디자인 조형물, 드로잉, 영상 및 기타 작품 등 총 80여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시 2020.10.15. ~ 2021.2.28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강원디자인진흥원 전시실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 후평산업단지 내)

문의 070-7791-2694

전시내용

전시명	일시	장소
강원디자인협회전	2020.10.15. ~ 10.27.	1층 전시실
Design is Life, Life is Design 상설전시	2020.10.15. ~ 계속	2층 전시실
Design's showcase 특별 기획전시	2020.10.15. ~ 2021.2.28.	2층 전시실

카림라시드 글로벌 디자이너 안나질리 이탈리아 대표 여류디자이너 한성재 예술융합기기 디자이너 조민서 인터랙티브미디어 아티스트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건설을 환영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건설로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구체화하고,
군민 행복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하겠습니다.

Yangyang



글로벌 도시 양양,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